

18세기 ‘問情別單’을 통해 본 중국 漂着 濟州人의 漂還 실태*

김동전**

〈차 례〉

1. 머리말
2.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 현황
3. 18세기 중국 漂着 제주인의 漂還 실태
4. 맺음말

【국문초록】

표환인은 표류되었다가 돌아온 사람으로 漂人이라고도 한다. 표환인 문정별단은 표환인의 거주지, 표류 일시, 표착지와 표착지의 지형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 지형·민속·의복·음식·農桑·城池·군병, 표착지에서의 이동 거리, 경유지에서의 견문 내용, 체류일자 및 이국에서 대우받은 사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18세기 제주 표환인 문정별단은 시기적으로 영조 17년(1741)에서 정조 3년(1779)에 해당하는 9개 사례이다. 즉, 영조 17년(1741) 김철중(18명), 영조 34년(1758) 김해백(40명), 영조 38년(1762) 김중경(7명), 영조 41년(1765) 김순창(8명), 영조 46년(1770) 부차길(8명), 영조 51년(1775) 김세발(7명), 정조 2년(1778) 5월 고만재(13명), 정조 2년(1778) 8월 고수만(46명), 정조 3년(1779) 윤도준(9명) 등의 표환 사례이다.

결국 9개 사례를 통해서 볼 때에 표류지역은 대부분 제주와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표착지는 절강성 전잠도, 관산도, 영성현, 복건성 하포현, 장산도, 소주부 영부사, 새사흥도 등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일대와 대만 지역에 이르고 있다. 귀환 경로는 북경을 거쳐 심양, 책문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귀환 경로 중에 대접 받은 내용들은 대부분 음식과 의류이다. 쌀, 돼지고기, 좁쌀, 道尾魚, 메밀국수, 單長衣·單袴·履子, 大布, 大米,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염소, 바지, 방한구, 버선, 신발, 양피옷, 이불, 양피 털 버선, 은자, 당전, 은화 등이었다.

표환인들의 출항은 말 안장, 말, 굴, 전복 등의 진상, 나리포참의 곡식 운반, 갯양태 등의 行商, 유배, 어업 활동 등을 하다가 표류하고 있다. 9개 사례 표환인 총 156명 중에 나이별 분포는 10대 4명, 20대 34명, 30대 55명, 40대 36명, 50대 19명, 60대 6명, 70대 2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40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생산 활동이 강한 사람이 많이 표류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표류해서 귀환 중에 사망한 양진영, 박천망의 경우처럼 병사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검시가 이루어진 후에 장례가 치루어졌다. 제주 거주 사실을 속이고 거짓 진술하는 諱稱은 전라도 영암군 소안도, 강진, 나주 출신임을 밝히는 사례가 있었다.

[주제어] 표환인(漂還人), 표인(漂人) 문정별단(問情別單), 제주, 휘칭(諱稱), 표류(漂流), 절강성(浙江省), 복건성(福建省), 대만(臺灣)

1. 머리말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인들의 삶과 역사는 바다와의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동아시아 해역의 중심에 위치한 제주는 바다 발을 일구고 주변 지역과의 끊임 없는 교류와 교역 속에서 그 위상을 지켜올 수 있었다. 그러나 제주와 바다라는 키워드를 상정할 때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분기점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원의 멸망이었다. 원의 멸망이 제주인들에게 가져다 준 결과는 열려 있던 동아시아 해역이 서서히 닫힌 바다로 가는 길목이었다는 점이다.

원의 멸망이전 탐라국으로 대변되는 시대의 제주바다는 분명 열린 바다였고, 제주인들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동아시아 해역을 누비고 다녔다. 원의 세계대제국 건설 실패와 원명교체기 원에 의해 추진했던 제주피난군전 프로젝트의 좌절, 뒤이은 원의 멸망으로 해금정책은 명에게 넘겨졌다. 명의 주원장은 1371년 연해주민의 出海를 막는 해금정책을 발표하였다. 명의 이러한 정책은 조선에게 그대로 이어졌고, 여기에 조선은 공도정책을 더 보탰다.¹⁾ 조선이 공도정책을 추진했던 하나의 이유는 여말선초부터 동아시아 해역에

1) 강봉룡, 『바다에 새겨진 한국사』, 한얼미디어, 2005.

창궐하기 시작한 왜구 때문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남해안을 비롯한 대부분의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육지로 옮겨졌지만, 제주인들은 그냥 제주섬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여말 선조 제주에 거주하던 5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을 전부 육지로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추자도에 살고 있던 일부 사람들이 제주로 옮겨졌다. 탐라의 해양실크로드는 서서히 역사의 전면에서 그 역할이 축소되어져 나갔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제주 바다는 동아시아 세계와 단절된 닫힌 바다로만 존재하였던 것일까? 그렇지 않았다. 비록 바닷길이 점차 닫혀 나갔지만 제주-바다-동아시아의 연결 구도 속에서 제주는 주변지역과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졌다. 즉, 닫힌 바다에서도 사면의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야 했던 제주인들은 뜻하지 않은 바람을 만나 다른 지역으로 표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과정에서 제주인들은 끈질기게 동아시아 해역을 왕래하며, 제주 중심적 세계관을 키워왔다.²⁾

인위적인 항해를 통한 적극적 교류는 아니었지만, 조선시대 표류의 중심에 있었던 제주인들의 표류실태와 표류의 역사적 의미를 동아시아 해양문화사적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른 지역을 포함해서 해외의 일본·중국·오키나와·대만·운남 등 동아시아 각 지역의 표류민에 대한 공동의 연구로 확대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표류와 표도를 통한 동아시아 해역의 새로운 이해와 향후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서로 연대하는 공동의 네트워크 구축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 동안 동아시아해역의 표류민에 대한 연구는 일본에서 먼저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 국내에서의 연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오키나와

2) 『한라장족』, 『탐라순력도』(영인본), 1993, 17쪽.

3) 金指正三, 『近世海難救助制度の研究』, 吉川弘文館, 1968; 池内敏, 『近世朝鮮人漂着年表』, 吉川弘文館, 1995; 池内敏,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1998; 小林茂・松原孝俊・池内敏, 『漂流・漂着からみた環東漂シナ海の國際交流』(1996年度文部省科學研究費補助金 基礎; 研究B 研究成果報告), 1997.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⁴⁾ 또한 표류민의 성명, 성별, 나이, 가족관계, 출신지, 직역, 해상활동 등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한일관계사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의 연구도 시도되었다.⁵⁾ 제주지역 표류민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제주계록』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와 제주인의 표류실태를 파악한 연구가 있다.⁶⁾

본 논문에서는 『비변사등록』에 나타난 제주 표환인 문정별단의 분석을 통하여 18세기 중국에 표류되었던 제주인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환인은 표류되었다가 돌아온 사람으로 漂人이라고도 한다. 표환인 문정별단의 주요 내용은 표환인의 거주지, 표류 일시, 표착지와 표착지의 지형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 지형·민속·의복·음식·農桑·城池·군병, 표착지에서 이동 거리, 경유지에서의 견문 내용, 체류일자 및 이국에서 대우받은 사항 등이다.⁷⁾ 개인이 남긴 표류기나 표해록 등에 비하여 문정별단은 정해진 질의 내용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문정 내용이 매우 소략하고 단편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생활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하기에는 유익한 장점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살필 18세기 제주 표환인 문정별단은 시기적으로 영조 17년(1741)에서 정조 3년(1779)에 해당하는 9개 사례이다. 즉, 영조 17년(1741) 김철중(19명), 영조 34년(1758) 김해백(40명), 영조 38년(1762) 김중경(7명), 영조 41년(1765) 김순창(8명), 영조 46년(1770) 부차길(8명), 영조 51년(1775) 김

4) 이훈, 『조선 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0; 한일관계사학회 편, 『조선시대 한일표류민 연구』, 국학자료원, 2001; 하우봉·손승철·이훈·민덕기·정성일, 『조선과 유구』, 아르케, 1999.

5) 정성일, 「전라도 주민의 일본열도 표류기록 분석과 데이터베이스화(1592~1909)」, 『사학연구』 72, 2003.

6) 고창석, 「19세기 제주인의 표류실태」,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1997; 김동진,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실태와 대외인식」, 『제3회 세계한국학대회 발표자료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7) 『비변사등록』 126책, 영조 29년 12월 1일. 『汝矣等, 以何地居生之人, 何年·月·日, 自何處飄風是旆, 漂泊之島, 地名云何, 地形·人物多少, 衣服·飲食等事如何是旆, 居住幾日到北京, 而海路幾里是旆, 經過時所見, 可以記得者, 一一細告爲旆, 留北京幾日發向前路, 而彼人見待何如是旆, 汝矣等, 姓名·根脚, 竝以一一現告亦』.

세발(7명), 정조 2년(1778) 5월 고만재(13명), 정조 2년(1778) 8월 고수만(46명), 정조 3년(1779) 윤도준(9명) 등의 표환 사례이다.⁸⁾

2.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 현황

바다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살아왔던 제주인들은 바람을 만나 표류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였다. 매 3년마다 호적을 작성하면서도 표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호적중초 말미에 「표류 1구」 등 만일에 대비하여 표류민에 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⁹⁾ 이 경우 도망자와는 구분해서 기록해 놓았다.

해난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동아시아 해역에 침몰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였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바다로 나간 배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제주인들은 '피안의 섬, 이어도'와의 관계를 설정하려 한다. 이 섬을 본 제주인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이 섬을 만나면 제주도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제주인들은 늘 가지고 있었다.

조난을 당한 배가 없어지면 대부분은 일단 실종된 것으로 파악한다. 인근 지역에서 의사체로 발견된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진흥정책에 의해 일정한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종했을 경우에 다행히 일본이나 琉球, 중국 등 다른 국가에 표류하였을 경우에 동아시아 3국간에는 송환체제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돌아 올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그러나 글자에 문외한인 경우에는 표착지에서 언어가 소통되지 않아 제주로 돌아오는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사례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귀환 시일은 매우 많이 소요되었다. 순풍을 기다려 해로를 통해 바로 귀환되는 것이 아니라, 귀환절차 및 경로가 매우 복잡하였기 때문에 수 개월 혹은

8) 각 사례의 제주 표환인 중에서 대표적인 1명의 이름만 제시하였고, ()에 전체 표환인 숫자를 표기하였다.

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주 대정현사계리 호적중초』(I), 1996.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에 표류한 경우는 북경, 일본에 표류한 경우는 대마도를 거쳐 송환되었다. 琉球에 표착한 경우의 귀환경로는 중국 동남부 지방을 통해 대륙을 종단하여 북경에 도착하여 국왕을 뵙고 난후 요동·압록강을 건너 의주·한양에 도착하여 국왕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보고한 후에 전라도를 거쳐 제주도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 長崎, 대마도를 경유하여 부산, 전라도를 통해 귀환하는 경우이다. 귀환시일이 매우 많이 소요되다 보니, 제주에서는 조난을 당하고 1주일, 1개월 등 오랫동안 소식이 없으면 그 가족들은 이미 죽은 것으로 단념하고 招魂墓를 만들어 대·소상은 물론 제사를 지내기에 이른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대·소상날 혹은 제삿날 밤에 뜻밖에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귀환일자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송환기일이 매우 많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다음은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실태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살피기 위하여 <표 1>을 작성하였다.

<표 1>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 현황¹¹⁾

<단위 : 건>

시기	표류 지역						계
	일본	오카나와	중국	안남	국내	기타	
세종	3						3
문종	1						1
단종	2		1				3
세조	2	4	1				7
성종	4	4	9			1	18
연산군	1	1					2
중종	5	1	9			7	22

10) 고창석, 앞의 논문, 202쪽.

11) 김동진,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실태와 대외인식」, 『제3회 세계한국학대회 발표자료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인종		1					1
명종		1	5				6
선조	2		1			2	5
광해군	1						1
효종	1						1
현종	4					1	5
숙종	14	1	3	2		7	27
경종	5						5
영조	33	3	10		2	29	77
정조	12	1	3			5	21
순조	16						16
헌종	13		1			2	16
철종	12						12
고종	48	1	2		1		52
합계	179	18	45	2	3	54	301

자료 :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제주계록』

〈표 1〉에 의하면, 제주인의 표류 건수는 301건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건수는 어디까지나 기초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것에 불과하다.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제주계록』 외에 『표인영래등록』(규12956), 『표인영래차왜등록』(규12954) 등의 국내 자료라든가, 『漂民被仰上』¹²⁾ 『公義被仰上』(慶應大學圖書館 소장) 등과 그 외 수많은 일본측 자료, 아직 잘 파악되고 있지 않은 중국측 자료 등을 감안할 때 제주민 표류 건수는 1,000여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즉, 지리적 여건상 해상에서 사망한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표류 건수는 상상을 초월하리라 본다.

301건을 통해서 볼 때, 조선전기(선조 이전)가 68건, 조선후기(광해군 이후)가 233건으로 나타난다. 이는 조선전기에 비해 조선후기에 표류가 빈번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후기 자료가 다양하게 많이 남아 있

12) 일본 長崎縣立 대마역사민속자료관 중가문고에 보관되어 있음.

다는 점과 한국과 일본간의 송환체제가 조선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표류기록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영조 때로 77건에 이른다. 비교적 18·19세기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도 자료의 시기와 무관하지 않다.

301건 중에 179건이 일본 표류기록이다. 오키나와가 18건, 중국이 45건, 안남 2건, 국내 3건, 기타 54건이다. 기타 54건은 표착지 지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인데, 표류 기록을 일일이 자세히 검토해 본다면 상당수는 표착지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3. 18세기 중국 漂着 제주인의 漂還 실태

1) 영조 17년(1741) 金喆重 등 사례

중국에 표류하였다가 북경으로부터 귀환한 제주 거주인 김철중 등 18명과 나주 거주인 이극중 1명에 대하여 비변사 낭청에서 영조 17년 11월 문정이 이루어졌다.¹³⁾ 이들 일행의 귀환 도중에 같은 배에 타고 표류했던 金赤이 북경으로 가는 길에 山南皮 지방에서 병으로 사망했고, 그의 시신은 산남피에 매장되었다.¹⁴⁾ 따라서 처음 동승자는 선주 문용장을 비롯하여 제주 아전 김철중 등 20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정의 내용은 표류일시, 표착지의 지형, 태주의 민속, 의복, 음식, 農桑, 城池, 군병과 대우받은 내용 등이다. <표 2>는 당시 제주 표환인 명단이다.

13) 『비변사등록』 109책, 영조 17년 11월 23일.

14) 『비변사등록』 109책, 영조 17년 11월 23일.

〈표 2〉 영조 17년(1741) 제주 표환인¹⁵⁾

표환인	비고
金喆重(32세)	濟州 衙前
安 益(50세)	從人
文隆章(36세)	船主
韓守返(31세)	沙工
文義滿(32세), 文必景(31세), 金之完(57세), 洪致完(61세), 洪義澤(40세), 韓夫申(46세), 韓道興(37세), 張道星(44세), 車得還(50세), 朴次周(21세), 宋石柱(18세), 李已雄(49세), 李義發(33세), 金元昌(33세)	格軍
李克中(34세)	羅州 商人
金赤	病死

(1) 표류의 경위

영조 17년(1741) 2월 29일 船主 문용장(나이 36)은 제주 衙前 김철중(나이 32)과 나주 상인 이극중(나이 34), 그리고 격군 및 사공 등 모두 19명이 동승하여 제주에서 출륙하였다. 출륙의 목적은 사복사에서 요구한 물품 말鞍裝 18部를 바치기 위한 것이었다. 나주 상인 이극중은 私商으로 제주에 왔다가 이 배에 더붙어 동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 아전의 從人으로 안익(나이 50)도 함께 동승하였다. 이 배의 사공은 한수반(나이 31)이었으며, 격군은 문의만(나이 32), 문필경(나이 31), 김지완(나이 57), 홍치완(나이 61), 홍의택(나이 40), 한부신(나이 46), 한도홍(나이 37), 장도성(나이 44), 차득환(나이 50), 박차주(나이 21), 송석주(나이 18), 이이웅(나이 49), 이의발(나이 33), 김원창(나이 33) 등 14명 이었다.

문용장의 배는 제주를 출륙한 후에 풍랑을 만나 남해안에서 표류하였다. 표류 기간 동안에 이들은 배가 혹시 琉球國에 표류할 것을 염려하여 그들이 지닌 지닌 호패와 제주 두 글자가 쓰인 문서 및 돈 40여 냥을 모두 바다에 내던졌다. 이는 제주 사람들이 이국에 표류하였을 경우에 살해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제주의

15) 『비변사등록』 109책, 영조 17년 11월 23일.

험한 해양환경으로 인해 타국인들로 하여금 살해의 오해를 얻어, 이 때문에 타국인은 제주인을 만나면 죽인다는 설이 있다. 다음으로 광해군 3년(1611) 제주에 표류하여 제주목사 이기빈 등에게 해를 당한 ‘일본·유구·안남 상인 및 사신’ 가운데 한 사람이 ‘유구 또는 안남왕자 살해설’로 널리 왜곡되어진 사실이다.¹⁶⁾

문용장의 배는 3월 21일 오시쯤, 작은섬 무인도에 표착하였다. 즉, 절강 태주부 임해현의田蘰島에 표착한 것이다. 이에 중국 병사 40여 명이 배 2척에 나누어 타고 와서 음식을 제공해 주었고, 문자로 약간의 소통을 할 수 있었다. 표착인들은 표착지가 유구국일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 출신임을 속이고 조선국 전라도 영암군 소안도 출신으로 거짓 진술한 것이다.

3월 22일 중국 병사들이 작은 배 5척에 각각 20여 인이 타고 전잠도로 와서 우리 일행을 그들의 배에 모두 태우고 이동하였다. 표류 선박은 그들의 배 뒤에 매고 10여 리를 이동하였으나, 바람이 심하고 바닷물이 갑자기 높아져 더 이상 배를 끌 수가 없어서 수중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밖에 없었다. 다음 날 배 7척이 추가로 와서 병사들이 머무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2) 귀환 경로 및 접대 내용

표류인들의 귀환경로는 제주 해역 표류(1741. 2. 29) -> 절강현 태주부 임해현 전잠도 표착(1741. 3. 21) -> 태주부 해문관(3. 28일경) -> 태주부 압송(4. 1, 약 3개월 체류) -> 신창현·천태현·승현 -> 소흥 -> 항주(10여 일 머무) -> 7월 초 2일 북경으로 출발 -> 산남괴: 김적 사망 -> 북경 도착(8월 22일) -> 북경 출발(9월 26일) -> 심양 -> 봉성 -> 의주 -> 한양 도착이다.

절강현 태주부 임해현 전잠도에 표류한 제주인 김철중 일행은 태주부의 병선 2척이 도착하여 문정을 실시하였다. 그후 배에 각각 10명씩 나누어 타고, 표류 선박은 병선 풍지에 매달고 2일간 이동한 후에 태주부 海門關에 도

1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김나영, 『15~19세기 표류 제주인의 출신지 휘청 양상에 대한 고찰』,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9권 1호, 역사문화학회, 2016.

착하였다. 조선의 감·병영과 같은 千總所로 들어가 식사를 제공받았다. 천 총소는 모두 기와집으로 여러 층의 누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표류인들은 해문관에서 2일을 머문 후에 작은 배로 옮겨 타고, 將校가 정해져서 官文을 받아 4월 1일 台州府로 압송되었다. 태주부에서 다시 문정을 받고, 바깥 출입은 금지된 가운데 天寧寺에 거의 3개월 가까이 머물렀다. 태주부에서 4월부터 6월까지 머물렀는데 그 사이 홀옷·푸른옷·버선·신 등 각 1건을 제공받았다. 또한 매일 술 한 병을 받았으나 인주는 별로 주는 일이 없었다. 김철중 일행은 조선으로 빨리 돌아가게 해 달라는 뜻으로 태주부에 글을 써서 바쳤는데, 결국 杭州 巡撫都院 布政衙門의 접수를 받은 후 귀환 길에 오를 수 있었다.

6월 11일 태주부에서 술과 떡 등 잔치를 벌인 뒤에 差員을 정하고, 草輻에 매 1인에 각각 2인이 메고 육로로 4일간 이동하였다. 즉, 태주부에서 항주로 이동하면서 八疊橋·新昌縣·天台縣·嵊縣 등 4곳을 지났다. 표류인들은 팔첩교는 4면이 첩첩하고 수목이 울창하였으며, 天台山은 모양이 圓峰과 같았고 그 아래에 천태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나아가 천태현의 성첩은 모두 돌로 쌓았고 회로 발랐 있었으며, 성곽의 인물은 다른 곳에 견주어 매우 많아서 우리 일행이 성안을 지나갈 때에는 이를 보려는 자들이 계속 몰려들어 성안을 빠져 나오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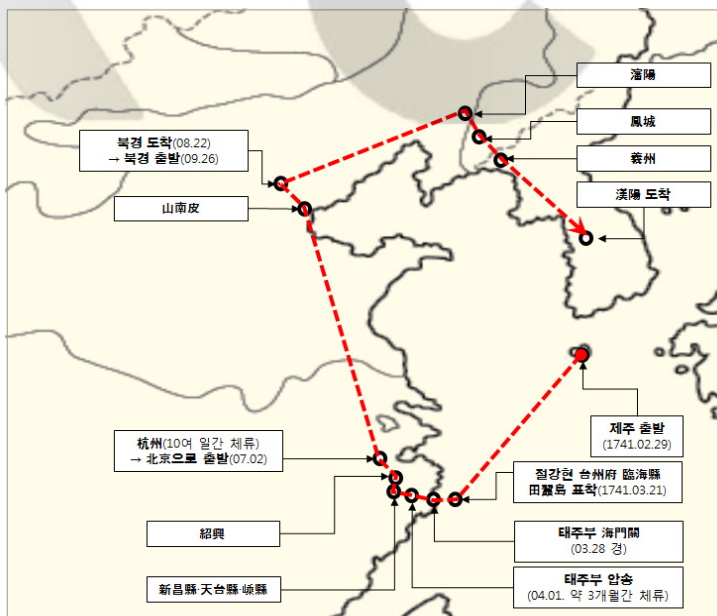
승현에 이르러 강을 건널 때는 대나무로 엮은 筏[筏]를 타고 건넜으며, 紹興에 도착하여 배를 다시 바꾸어 타고 杭州에 도착하였다. 항주에서는 東嶽廟라는 사찰에 머물렀는데, 사찰은 3면이 강에 임하여 있었고, 1면은 큰 바다와 접해 있었다. 성곽의 인물은 다른 곳에 견주어 더욱 많았고 성안에 巡撫都院御史·布政司·按察使·給事·仁和縣 등이 있었다.

항주에서의 접대는 다른 곳에 비하여 좀 후한 편이었다. 항주의 布政衙門에서 각각 2냥, 순무이문에서 각각 1냥의 은을 제공받았다. 항주에 머무른지 10여일 뒤인 7월 초 2일 작은 배 3척을 타고 북경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도중에 우리 일행 金赤이 山南皮 지방에서 병으로 사망하여 장사를 지내야

했다. 북경에 도착한 것은 8월 22일이었다. 표류한지 5개월 23일, 전잠도에 표착한지는 5개월만이였다.

북경에서는 禮部에서 點考한 뒤에 會同館에 머물게 하였다. 북경에서의 접대로는 19명에게 매일 먹을 쌀 1두 9승, 양고기 2냥, 염장 소채 등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직접 밥을 해 먹으면서 32일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술의 접대는 2번에 불과하였다.

마침내 표류인들은 9월 26일 通官 徐宗孟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다. 심양에 도착하자 날씨가 매우 추워졌고, 이에 통관 서종맹은 羊皮背心 각 1건을 사서 우리 일행에게 주었다. 봉성에 도착하고 의주에 이르기까지 다만 한 끼의 조밥만을 먹는데 불과하였지만, 병사자 김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존하여 돌아왔다. 특히, 제주 아전 김철중은 표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鏡子 1개는 빼앗겼지만, 사복시에 진상할 물품인 말 안장 18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잘 간직하여 귀국 후에 진상할 수 있었다. 김철중 일행의 표류되어 귀환까지의 경로를 지도에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 영조 17년(1741) 金喆重 등 사례

(3) 표착지의 風物 및 見聞 내용

표류인들이 귀환 경로 중에 견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태주부에서의 견문 내용으로 남자는 머리에 屹羅를 썼고 몸에는 푸른 옷을 입었으며 발에는 검은 신 또는 綵水靴를 신고 있었다. 반면에 여자는 머리에 쪽을 지었고 몸에는 긴 옷을 입었으며 발에는 뽕죽한 分土를 신고 있었다. 또한 해문관의 병사는 조선의 감·영과 같았고, 모두 기와집으로 관사는 여러 층의 樓閣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둘째, 태주부에서 3개월 가까이 머물면서 태주부의 여러 상황을 見聞할 수 있었다. 즉, 태주부에서는 4월 초에 보리, 밀, 콩, 팔의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논에는 벼목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기장과 조도 씨를 붙이는 시기였다. 태주부의 쌀은 낱알이 길고 맛이 좋지 않았으며, 저자거리의 남자는 채색 비단을 짚고 온갖 물건이 저자에 가득하여 매우 변화한 태주부 실상을 보여 주고 있다. 나이가 소위 옛 越나라이기도 했던 태주부의 府使는 곧 당상관으로서 평시의 출입에 駕輜를 타고 紅蓋를 뺐으며 목에는 염주를 걸었고 취수·나장·사령이 나팔을 갖추어 매우 軍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臨海縣의 책임자는 당하관으로 가교에 청개를 뺐으며 염주는 없었고, 행차는 부산의 군용에 미치지 못하였다. 태주부사의 성은 馮가요 임해현 감의 성은 陳가이며 태주부와 임해현이 한 성안에 있고 이 외에 3~4 관원이 있는 곳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넷째, 海門關의 앞강 좌우에는 배가 무수하게 많았고, 배의 크기가 조선의 戰船과 같았으며 모두 단청을 하였고 기를 꽂고 포를 쏘았으며 장수가 배에서 호령하였는데, 소위 '福建 大老爺'라고 외쳤다고 한다. 군졸은 모두 붉은 옷을 입었고 마치 조선의 水上 조련하는 모습과 유사하였다.

2) 영조 34년(1758) 金海白 등 사례

영조 34년(1758) 9월 북경에서 回還한 漂人은 모두 40명이다. 즉, 개성부 거주 金應澤, 서울거주 李馨番 등 4명, 제주목 거주 金海白 등 22명, 제주

정의현 거주 李培壽 등 2명, 전라도 나주 거주 黃載哲, 진도 거주 金淡哉, 강원도 원주 거주 尹敬信, 淸安 거주 方三伊 등 4명, 報恩 거주 鄭雲善 등 4명이다.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 <표 3>이다.

<표 3> 영조 34년(1758) 제주 표환인¹⁷⁾

거주지	표환인	비고(승선 사유)
개성부	金應澤(31세)	갓양태 行商
서울	李馨番(24세), 姜北實(22세)	갓양태 행상
	金兌萬(31세), 李芑伊(41세)	금주죄, 제주정배
제주목	金海伯(29세), 張永漢(33세)	제주목 형리
	姜甘金(48세), 金之昌(28세), 安致蕃(44세), 金載兌(26세)	제주 사령
	金千長(30세), 趙有孟(25세), 李成發(39세), 李枝連(46세), 趙有牧(32세), 玄五龍(17세), 金次錫(41세), 梁進永(病死)	갓양태 행상
	金再完(33세), 宋千萬(21세), 金重田(34세)	買納色吏(鞍裝 진상)
	高有昌(46세), 李次發(45세), 李春起(27세), 李枝昌(38세), 許楚安(29세), 金永金(22세)	船人(화북진)
정의현	李培壽(51세), 李文星(33세)	買納色吏(山果 진상)
나주목	黃載哲(31세)	移轉監官
진도군	金淡哉(41세)	船人
淸安현	方三伊(47세), 金任金(58세), 宋夢先(20세)	금주죄, 제주정배
	金永三(22세)	김임금 아들
보은현	鄭雲善(58세)	금주죄, 제주정배
	私婢 世白(50세), 鄭崐萬(22세), 鄭明哲(17세)	정운선 아내, 아들
원주목	尹敬信(31세)	갓양태 행상

표류 선박에는 제주목과 정의현 외에 개성, 서울, 나주, 진도,淸安, 보은, 원주 등 7개 지역 거주자 등 모두 41명이 동승하였다. 제주목 거주자인 양진영이 도중에서 병사하였기 때문에 표환인은 40명이었다. 표환인 중에 갓양태 행상인은 개성 상인 김응택을 비롯해 모두 11명이다. 18세기 제주의 갓양

17) 『비변사등록』 135책, 영조 34년 9월 21일.

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산품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개성상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상인들이 갯양태 행상을 업으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금주의 죄목으로 제주에 유배되어 있다가 풀려나 배에 탔던 인물이 김태만, 이돌이, 방삼이, 김임금, 송몽선, 정운선 등 6명이다. 유배 죄인 관련 가족이 김영삼(김임금 아들), 私婢 世白(정운선 아내), 정엇만·정명철(정운선 아들) 4명이다. 당시 금주의 죄목으로 제주에 유배된 인물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배 죄인들의 호송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제주목 형리와 사령 등 6명이 동승하였고, 말 안장과 山果 진상을 위한 색리 5명, 이전미 담당했던 감관 1명, 뱃사공 7명이었다.

(1) 표류의 경위

갯양태 행상을 업으로 하다가 제주에서 출륙하는 배에 승선하였다가 표환되어 온 金應澤(개성부 거주)의 진술을 토대로 표류 경위를 살펴 보자.¹⁸⁾ 승선자 중에 갯양태를 質販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모두 12명(병사자 양진영 포함)이었다. 이중 제주 거주자를 제외하면 4명으로 개성, 서울, 원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갯양태를 구입할 목적으로 쌀을 싣고 제주도에 들어왔다가 표류한 것이다.

영조 34년 정월 초 3일 모두 41명을 승선한 배가 화북진을 출발하였는데, 태풍을 만나 다음 날인 초 4일 추자도에 정박할 즈음에 돛대가 기울고 노가 끊어져 표류하였다. 4월 13일에 하나의 큰 섬에 표착하였으나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언덕 근처 草幕에 거주하는 사람 5인을 만났으나 언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월 15일 아침에 검은 옷을 입은 남녀 1백여 인이 찾아오자 문자로 소통한 결과 표착지가 복건성의 臺灣地方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 『비변사등록』 135책, 영조 34년 9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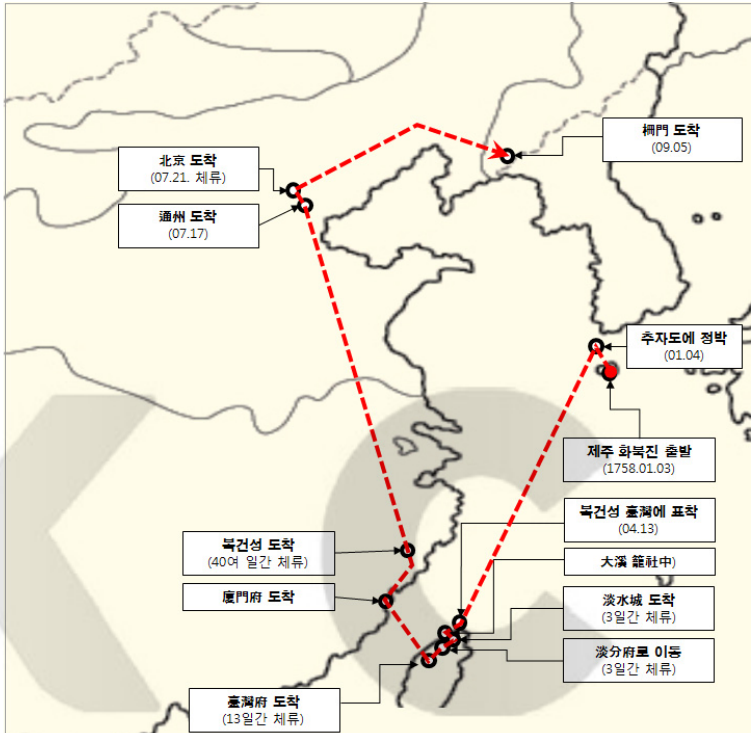
(2) 귀환 경로 및 접대 내용

표환인들은 표착지에서 조선인임을 밝히자 죽과 밥을 제공받았다. 이들은 大溪 籠社中을 거쳐 淡水城에 도착하였다. 이에 城官으로부터 각각 唐錢 2냥씩을 받고 3일을 머무른 뒤에 다시 淡分府로 이동하니, 府에서 각각 銀貨 1냥씩을 주어 3일 머물렀다가 臺灣府에 이르렀다. 이번에는 衙門에서 각각 大布 2필과 銀貨 1냥 4전을 주었으며, 또 大米 2석과 돼지 2口, 염소 2구를 제공받는 등 접대를 잘 받았다. 중국의 다른 지역에 표착하였을 때보다 대만의 경우에는 조선인을 후하게 대접해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만부 관사에 13일간 머물다가 관원들이 표환인을 두 척의 배에 나누어 싣고 주야로 항해하여 4일 만에 廈門府에 도착하여 인계되었다. 하문부로부터 약간의 糧饌을 대접받고 하루를 머물다 군졸 5명의 호송을 받고 육로로 10여 일을 이동하여 복건성에 이르렀다.

복건성 아문에서 捧招하고 관사에 40여 일을 유치한 뒤에 각각 은화 7냥을 받았고, 마침내 한 관원을 차출하여 4월 그믐 날 배에 태워 출발하였는데 경유한 군현마다 빈갈아 식량을 주고, 7월 17일에 비로소 通州에 정박하였다. 그 도중에 동행인 梁進永이 病死하여 통주 관원의 檢屍가 끝난 뒤에 현지에 매장하였다.

통주에서부터는 수레를 이용하여 육로로 이동하여 7월 21일에 북경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禮部에서 琉球館에 연금시키고 문정하였다. 徐通官이란 자가 와서 바다에 표류한 정황을 물었고, 은화 6냥과 唐錢 60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관아로부터는 날마다 糧饌을 지급받았다. 8월 초 5일에 예부에서 우리들 가운데 열 사람을 불러 20냥의 路資를 나누어주고, 초6일에 通官을 정하여 귀환시켰다. 各站으로부터 식량과 돈을 지급받았고, 9월 5일에 柵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죽을 고비를 넘기느라 지나면서 본 바는 기억할 수 없으며, 표류하여 정박한 곳에서 복건성에 이르기까지의 수로는 몇 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육로는 천여 리이고 복건에서 북경까지 경과한 수로는 4천 5백여 리이며, 육로는 2백여 리였다. 바다에서 표류한지 9개월만에 귀환한 것이다. <그림 2>는 김해백 일행이 표류에서 귀환까지의 경로를 지도

에 나타난 것이다.



〈그림 2〉 영조 34년(1758) 金海白 사례

3) 영조 38년(1762) 金重京 등 사례¹⁹⁾

영조 38년(1762) 4월 제주 표환인은 7명이었다. 임피현 나리포에서 쌀을 구입하고 제주로 돌아오던 중에 표류한 것이다. 임피현 나리포에는 제주의 흉년에 대비하여 창고를 설치하고 별장을 두어 관리하고 있었다.²⁰⁾ 표환인

19) 『비변사등록』 141책, 영조 38년 4월 15일.

20) 본래 나리포는 숙종 46년(1720) 진휼청에서 흉년에 대비하여 공주와 연기의 접경지역에 설치하였던 창고인데, 경종 2년(1722) 제주 구휼을 위해 제주도와 조금이나마 가까운 임피현으로 창고를 옮기고 별장을 두어 관리하였다. 그후 정조 10년(1786) 나주 제민창과 합병하여 운영하다가, 1794

중에 김중경, 이우청, 안적은 제주목 성안, 강재태, 부영만, 김성적은 제주목 우면 도두리, 홍중좌는 제주목 좌면 신촌리에 거주하였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표 4> 영조 38년(1762) 제주 표환인²¹⁾

표환인	비고
金重京(61세), 李遇靑(38세), 安赤(37세)	제주목 성내 거주
姜載泰(39세), 夫永萬(48세), 金成赤(37세)	제주목 우면 도두리
洪重佐(37세)	제주목 좌면 신촌리

표환인들은 제주목이 보리 흉작으로 인하여 곡식을 사들이기 위해 출륙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표류하였다. 제주에는 많은 재난으로 흉년이 비일비재하였다. 농업환경이 매우 불리하였으므로 곡식은 늘 부족하여 임피현의 나리포 창고의 운영을 통하여 제주 진휼을 도모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에서는 세금으로 받아들인 무명과 미역[甘藷], 갯양태[笠涼臺]·말총[馬尾] 등의 물건을 가지고 영조 37년(1761) 6월 7일 출륙하였다. 진도에서 하루를 묵고 11일에 臨陂縣 羅里鋪에서 겉보리 70석·沙器 1백 50竹·무명[白木] 3필·白紙 5束을 환매하였다. 나아가 제주목 移轉米 50석을 함하여 배에 싣고 7월 6일 물길을 따라 내려와 보길도에 이르러 순풍을 기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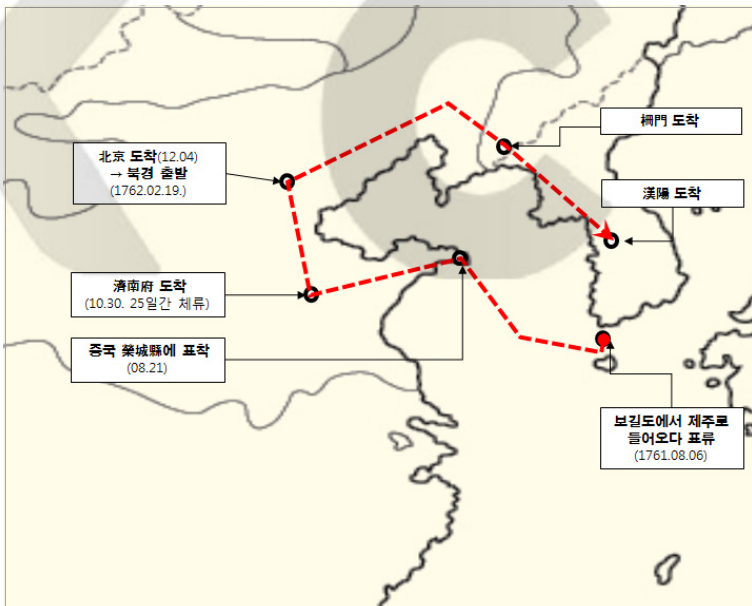
그런데 8월 6일 제주목으로 돌아오다가 동북풍이 크게 일어 돛대가 부러지는 등 표류하자 배 안에 실은 물건들을 모두 파도에 내던졌다. 8월 17일에는 풍량이 약간 잠잠해졌는데,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중국 선박이 있음을 확인하고 상의를 벗어 휘두르며 구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 일행 7명은 중국 선박에 옮겨 탈 수 있었고, 8월 21일 榮城縣에 이르러 바다에 표류한 정황 등을 글씨로 써서 대답하였다. 그 후 한 사찰에 머무르며 날마다 식량과 반찬을 공급받았고, 각각 동옷[襦衣], 바지, 머리에 쓰는 방한구, 버선·신 등

년 강진으로 옮겨졌다(『나리포사실』, 서울대 규장각 소장).

21) 『비변사등록』 141책, 영조 38년 4월 15일.

의 물건을 받았다.

10월 15일에 관인 1명, 보군 15명을 정하여 우리 일행을 각각 말에 태워 10월 30일 濟南府에 도착하였다. 아문에서 문정을 받은 후에 날마다 쌀밥을 제공받았고, 양갓옷[羊皮衣] 한 벌, 겹이불[襦衾] 1건, 은자(銀子) 5냥, 양피 털버선 1건씩을 받았다. 제남부에서 25일 동안 머무른 후에 12월 4일에 북경에 도착하였다. 禮部에서 문정을 받고 朝鮮館에 거처를 마련해 주어서 식량과 반찬을 공급받았다. 12월 28일 使行이 북경에 들어온 후에는 사행에게 내맡겨 그대로 북경에 머물렀다. 영조 38년(1762) 2월 19일 북경을 출발하여 柵門을 거쳐 한양에 도착하였다. <그림 3>은 김중경 일행이 표류에서 귀환까지의 경로를 지도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영조 38년(1762) 金重京 등 사례

4) 영조 41년(1765) 金順昌 등 사례²²⁾

표류인은 김순창 등 모두 9명이었으나 박천망이 병사하여 표환인은 김순창, 강재필, 임창성, 양해창, 이귀례, 김정태, 고여성, 하영창 등 8명이다. 모두 제주목 좌면 김녕리 포구에 거주하는 船人들이었다. 이들은 나리포에서 제주로 이전할 쌀을 실어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표 5〉 영조 41년(1765) 제주 표환인²³⁾

표환인	비고
金順昌(43세), 姜載必(31세), 任昌成(25세), 梁海昌(35세) 李貴禮(36세), 金廷太(23세), 高如成(31세), 河永昌(25세) 朴千芳(사망)	제주목 좌면 김녕리 거주 船人

표환인들은 영조 40년(1764) 9월 10일에 甘藷와 涼臺 등의 물건을 싣고 제주에서 임피현 羅里鋪로 출륙하였다. 그러나 날씨가 계속 좋지 않아서 12월 15일에야 나리포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지고 간 미역과 갯양태로 移轉米 1백 석과 取利米 35석을 배에 실어 영조 41년(1765) 1월 13일 출발하여 2월 10일에 제주목에 도착하여 이전미 1백석을 제주목 관아에 납부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11일 취리미 35석은 배에 실은 채로 미역을 사려고 제주목 좌면 別防鎭으로 향해하다가 화북진 앞 포구에 이르자 큰 바람을 만나 표류하였다. 즉, 돛과 돛대는 부서져서 배를 통제할 수 없었으며 주야로 40여일을 표류하였다.

배에는 비록 약간의 쌀알이 있었으나 해수가 짜서 밥을 할 수 없었으며 아무리 목이 말라도 역시 목을 적실 수도 없었다. 이에 비나 이슬이 내리면 옷에 적은 것으로 비틀어서 마시면서 연명하였다. 영조 41년 윤 2월 27일 복건성 하포현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우리 일행을 기진맥진하여 스스로 몸을 가눌 기력이 없었다. 낯선 사람 수십 명이 우리를 업고 한 곳에 이끌고 가서

22) 『비변사등록』 148책, 영조 41년 9월 4일.

23) 『비변사등록』 148책, 영조 41년 9월 4일.

처음에는 온수를 먹게 하였고 뒤에는 계속 죽을 먹여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신과 기운이 조금 살아날 수 있었다. 이에 ‘朝鮮國人’ 이라 쓴 네 글자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복건성 福寧府 霞浦縣에 표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하포현에서 문정을 받고 음식을 제공받았다. 7일이 지나서 복건성으로 이송되었고, 다시 복건성에서 문정을 받고 한 사찰에 머물게 되었다. 衙門에서는 매일 小錢을 각각 3錢 6分씩 계산하여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

또한, 각각 銀子 5냥과 검은 베로 만든 單衣 한 벌과 목면으로 만든 單衫 바지 각각 한 벌과 베로 만든 바지 한 벌과 靑三升 신 각각 1건과 寢席 각 1립과 우산 각각 1柄을 주었다. 4월 6일 해로를 이용하여 복건성을 출발하여 6월 26일에 북경에 도착하였다. 예부에서는 通官 徐宗顯을 정하여 朝鮮館에 유치시켰다. 북경에 머무는 동안 매일 공급되는 것 이외에 각각 1양 銀子を 제공받았다. 7월 9일 통관의 인솔하에 通州에 도착하였는데, 동료 朴千芳이 병을 얻어 사망하였다. 결국 지방관의 검시를 받고난 후에 매장하였다. 7월 16일 中後所에 도착하였고, 책문에 이르는 동안 각 站에서는 차례로 먹는 것을 공급받았다. <그림 4>는 표환인 金順昌 일행이 복건성 표착에서 귀환까지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영조 41년(1765) 金順昌 등 사례

5) 영조 46년(1770) 夫次吉 등 사례²⁴⁾

영조 46년(1770) 6월 瀋陽에서 돌아온 표류인 전라도 제주목의 船人 夫次吉 등 8명에 대한 문정이 이루어졌다. 표환인들은 제주목 중면 별도리에 거주하는 船格이었다.

〈표 6〉 영조 46년(1770) 제주 표환인²⁵⁾

표환인	비고
夫次吉(30세), 周東成(42세), 吳世信(51세), 金尹寶(30세), 洪元謙(42세), 金處俊(31세), 金元昌(36세), 金濟尹(51세)	제주목 중면 별도리 船格 등

부차길은 전라도 제주목 중면 別道里에 거주하는 船格[배의 결꾼]이다. 흥년으로 제주 이전곡을 임피현 나리포창에서 실어 나르기 위해 영조 46년 정월 15일에 별도리에 거주하는 金永完의 배를 가지고 출발하여 2월 초9일에 전라도 임피현에 도착하였다. 임피현에 얼마간 머무르다가 제주 이전곡 大米 3백 60석을 싣고 2월 21일 배를 띄워 제주로 제주목으로 돌아오다가 風勢가 불리하여 바다위에서 45일을 지체하였다. 비로소 4월 5일에 바다 가운데 이르렀는데 갑자기 사나운 바람을 만나 鷗木[키]이 부러져 배를 제어하지 못하고 13일간 표류하였다. 뿐만 아니라, 배의 밑바닥이 떨어져나가 찰과 각종 什物이 전부 물에 漂失되고 말았다. 이에 駕木과 帆席 등으로 밑바닥이 없는 배 위를 가로 세로로 엮어매고 저희들은 모두 밧줄로 몸을 그 위에 묶고 4일간 표류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죽음을 앞두고 바다 가운데서 중국 선박을 만나서 구조되었다. 그러나 밤낮으로 6일간 항해를 하다가 한 섬에 우리들을 내려놓고 그 배는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섬 사람과 문자로 서로 소통하였는데, 長山島였다. 좁쌀 밥[粟飯]을 얻어 먹으면서 8일간 머물렀다. 그후 漁採船을 타고 3일을 이동하여 關東地方이

24) 『비변사등록』 154책, 영조 46년 6월 21일.

25) 『비변사등록』 154책, 영조 46년 6월 21일.

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였다. 관원들의 문정을 받았는데, 제주 출신임을 숨기고 조선국 전라도 강진현 출신이라 거짓 진술하였다. 관아에서는 8명의 3일 식량으로 쌀 한 말과 끼니때마다 돼지고기 네 근이나 혹은 작은 道尾魚 네 마리를 주었다. 점심은 메밀국수 1명당 세 종지씩을 제공받았다. 성첩으로 둘러싸인 官家에서 21일을 머문 뒤인 윤5월 1일에 심양으로 출발하였다. 즉, 관가에서 매인에게 돈 3냥씩을 주고 수레 두 대에 저희들을 태우고 군인 13명을 차장하여 호송하게 하였다. 경유하는 각 참에서 차례로 먹여주었으며 비로소 5월 8일에 심양에 도착하였다. 심양에서 문정을 받은 후에 公館에 감금하고 각각 單長衣·單袴·履子 한 벌씩을 지어 주었으며 식량은 체류한 15일 동안에 쌀과 좁쌀 각 2두를 주고 반찬은 주지 않아 監護하는 군인들에게 사정하여 甘醬·과·마늘 등을 사서 반찬으로 먹었다. 5월 23일 관가에서 수레 두 대에 싣고 통관의 인솔 하에 보내주었기 때문에 별 탈 없이 돌아올 수 있었다. 이전곡의 공문은 표실하였고 각자의 호패는 제주의 '濟'자가 새겨져 있었으므로 중국의 배로 옮겨 탈 때에 바다에 던져버렸다. 다음 <그림 5>는 부차길 일행의 귀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영조 46년(1770) 夫次吉 등 사례

6) 영조 51년(1775) 金世發 등 사례²⁶⁾

영조 51년(1775)년 12월 제주 표환인은 고제신(77세), 김세찬(51세), 김세발(40세), 김세적(65세), 고화욱(39세), 김녕택(32세), 김사택(26세) 등 7명이다. 모두 제주목 우면 도두리 거주자들인데, 고기 잡이를 하다가 표류하였다. 김세찬, 김세발, 김세적은 같은 일가로 보인다. 77세의 고령인 고제신이 고기 잡이 배에 동승하고 있었다.

〈표 7〉 영조 51년(1775) 제주 표환인²⁷⁾

표환인	비고
高濟臣(77세), 金世贊(51세), 金世發(40세), 金世迪(65세), 高和郁(39세), 金寧宅(32세), 金仕宅(26세)	제주목 우면 도두리

문정 별단 중에 김세발의 진술에 의하면, 김세발은 제주목의 읍성 서쪽 10리쯤에 있는 都頭里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조 51년 5월 1일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고기 잡이를 하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 鵝木이 부러져 배를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에 돛대를 말아놓고 한 밤을 지냈지만 바람은 더욱 심해졌다. 급히 배 안에 있는 다른 나무로 치목을 만들고 돛대를 다시 세웠으나 어디를 향해 표류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5월 11일 마침내 중국의 절강성 한 작은 섬에 정박하였다. 배를 타고 고기 잡이를 하던 중국인 1백여 명이 표류인들을 발견하였다. 표류인들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짓으로 조선국 방향인 동쪽을 가리켰다. 조선 출신임을 알아 차렸는지 중국인들은 표류인들을 부축하여 육지에 내려놓고 맨 먼저 쌀뜨물을 먹여주고 그 다음 쌀죽을 먹인 다음 이어서 밥을 주어서 겨우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다.

그후 며칠 있다가 표류인들은 절강성 淸州府 臨海縣 이르러 아문으로부터

26) 『비변사등록』 157책, 영조 51년 12월 25일.

27) 『비변사등록』 157책, 영조 51년 12월 25일.

문정을 받았다. 이때 표류인 중에 글자를 조금 알고 있는 고화옥이 제주 출신임을 숨기고 조선국 나주 출신이라 거짓 글로 써 보여주었다. 아문에서는 술과 고기, 옷과 이불을 주면서 관사에 머물도록 해 주었다.

표류인들은 8월 11일 관인의 인솔하에 임해현을 떠나 8월 17일 절강성에 도착하여 26일간을 머물렀다. 절강성에서는 겨울옷과 末由子를 제공받았으며, 또 甲軍을 차정하여 三輛車에 태우고 10월 10일 비로소 북경에 도착하였다. 그때 마침 齋考官이 북경에 와 있어서 함께 머물 수 있었다. 그후 돌아오는 길에는 재자관이 沿路에서 먹고 자는 제반 사항을 전담해 주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귀환할 수 있었다.²⁸⁾ 김세발 일행이 표류에서 귀환까지의 경로를 지도에 나타낸 것이 <그림 6>이다.



<그림 6> 영조 51년(1775) 金世發 등 사례

28) 『비변사등록』 157책, 영조 51년 12월 25일, 金世發 供述.

7) 정조 2년(1778) 高萬才 등 사례²⁹⁾

정조 2년(1778) 5월 제주 표환인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복과 공마 진상을 위해 동승했던 高萬才(34세), 吳弼進(48세), 李仁寶(54세), 高安重(44세), 金次龍(51세), 高日云(52세), 李才永(40세), 金次三(70세), 金昌興(42세), 金寶完(23세), 金允文(24세)과 공작미 운반 임무를 맡은 姜賢雄(35세), 그리고 매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李長弼(50세) 등 모두 13명이다.

<표 8> 정조 2년(1778) 5월 제주 표환인³⁰⁾

표환인	비고
高萬才(34세), 吳弼進(48세), 李仁寶(54세), 高安重(44세) 金次龍(51세), 高日云(52세), 李才永(40세), 金次三(70세)	제주목 좌면 魚等浦/ 전복 진상차
金昌興(42세), 金寶完(23세), 金允文(24세)	제주 좌면 조천리/ 세공마 진상차
姜賢雄(35세)	제주 좌면 泉味里/ 공작미 운반차
李長弼(50세)	정의현 우면 홍로리/ 매부 吳界柱 생사 확인차

고만재 등 8인은 전라도 제주목 좌면 魚等浦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진상용 전복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조 원년 6월 26일에 배를 타고 바다로 출항하였다. 7월 4일에 전라도 강진현에 도착하여 色吏가 전복을 배에서 내려 진상하기 위하여 上京하였고, 고만재 등 8인은 7월 7일 배를 恩津으로 출항하여 甘藷를 팔고 右水營에서 무명과 바꾸어 배에 실었다. 9월 16일 영암 白島로 돌아가 바람을 기다리다가 9월 21일에 발선하여 막 大洋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사나운 바람을 만나 돛대가 기울고 櫓가 부러져 배를 제어하지 못하고 말았다.

10월 11일에 배가 破船되어 거의 죽게 될 무렵 다행히 漁採船의 구조를 받았다. 표착지는 절강부 玉環 지방 寬山島였다. 표류인들은 ‘朝鮮國 靈光郡’

29) 『비변사등록』 159책, 정조 2년 5월 23일.

30) 『비변사등록』 159책, 정조 2년 5월 23일.

이라 써 주었고, 그후 섬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물과 海菜, 쌀죽을 제공받았다. 10월 15일에 배를 타고 한 섬에 이르러 5일을 머물고, 10월 27일에 옥환 아문에 이르렀다. 아문에서는 별로 묻는 일이 없이 店舍를 정해주고 표류인 각자에게 매일 쌀 3승과 唐錢 15푼씩을 지급해 주었다. 또 상의와 바지 한 벌과 이불과 요를 제공해 주었다.

12월 26일에 領送官이 정해져서 草輜에 태워 호송하면서 지나는 곳에서 차례로 공궤받았다. 정조 2년 정월 11일에 항주에 도착하였으나 별도의 문정은 없었다. 정월 29일에 배를 타고 출발하여 2월 16일에 靑江浦에 도착하였으며 수레를 타고 3월 11일에 비로소 북경에 도착하였다. 표류인들은 예부의 通官으로부터 문정을 받고 公館에 거처하였다. 관아에서는 표류인에게 매일 각자 쌀 2승과 돼지고기 8냥 및 염장 등의 물자를 지급해 주었다. 결국 4월 13일에 통관이 정해져서 귀국할 수 있었다.

한편, 김보완·김창홍·김윤문 등은 제주 좌면 조천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세공마를 진상하기 위하여 정조 원년 6월 9일에 배를 타고 6월 15일에 강진현에 도착하여 이어서 말을 이끌고 상경하여 진상하였다. 그후 영암 梨鎭堡에 돌아와 배를 빌려 白島에 이르러 제주로 돌아갈 배를 기다리는 즈음에 마침 고만재의 선박을 만나 함께 승선하게 되어 표류하였다. 강현웅은 제주 좌면 泉味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나주목 등의 公作米를 실어 운반하기 위해 정조 원년 6월 26일에 고만재의 배에 함께 타게 되었다. 6월 28일 이진보에 도착했고 이어서 나주목으로 가서 공작미를 받아 실어 먼저 제주목으로 보내고, 강현웅은 公文을 받기 위해 남았다가 우연히 병을 얻어 조금 낫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그후 8월 6일에 이진보에 도착해 배를 빌려 백도에 닿았다가 고만재 등과 같은 배를 타 표류하게 되었다. 이장필은 제주 정의현 우면 烘爐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매부 吳界柱가 곡식을 사기 위해 제주를 출륙하였는데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 생사를 알 수 없었다. 이에 신원을 찾아보기 위해 정조 원년 6월 28일에 집을 떠나 7월 21일에 제주목 別刀浦에서 배를 타고 7월 22일에 이진보에 이르렀다. 그러나 행방을 찾을 길이 없어 제주로 돌아가려고 백도에 이르렀다가 고만재의 배에 함께 타서 표류하였다.

〈그림 7〉은 고만재 일행이 귀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정조 2년(1778) 高萬才 등 사례

8) 정조 2년(1778) 高守萬 등 사례³¹⁾

비변사에서 정조 2년(1778) 8월 중국 북경에서 回還된 전라도 제주 사람 高守萬 등 41명, 樂安 사람 秦光春, 京城 사람 李辰雄 등 3명, 충청도 稷山 사람 崔昌起, 公山 사람 金得生 등 모두 46명의 표류전말에 대한 문정이 이루어졌다. 표환인들은 청골과 추인복 진상, 행상인들이었다. 구체적인 명단과 나이는 〈표 9〉와 같다.

31) 『비변사등록』 159책, 정조 2년 8월 4일.

〈표 9〉 정조 2년(1778) 8월 제주 표환인³²⁾

표환인	비고
高守萬(44세), 梁成再(39세), 韓東明(28세), 金尙龍(47세) 金光弼(18세), 高有昌(66세), 李成龍(56세), 金再鍊(43세) 金元昌(44세), 梁先興(44세), 康再哲(31세), 高尚辰(33세)	제주목/ 靑橋과 秋引鰓 진상차
金夢魯(24세), 張甫龍(36세), 李大赫(36세), 許元(41세) 李東守(55세), 金就成(53세), 金益興(27세), 吳進太(32세) 愼守昌(33세), 金世九(34세), 文再弼(43세), 金麟道(45세) 尹處成(39세), 金萬兼(31세), 梁成佐(44세), 林九成(39세) 金國京(26세), 洪守宅(33세), 金九發(47세), 金大雄(43세) 高永文(27세), 張益采(29세), 鄭昌海(27세), 高再雄(68세) 鄭成友(62세), 김처발(황해도 瑞興에서 病死)	제주목/ 行商人
金漢宅(43세), 池永番(26세), 高處雄(22세)	대정현/ 行商人
秦光春(34세)	樂安/ 行商人
李辰雄(27세), 金成辰(38세), 梁丁旭(28세),	京城/ 行商人
崔昌起(32세)	稷山/ 行商人
金得生(32세)	公山/ 行商人

고수만·양성재·한동명·김상룡·김광필·고유창·이성룡·김재련·김원창·양선홍·강재철·고상진 등 12인은 제주 거주인으로 靑橋과 秋引鰓을 진상하기 위하여 정조 2년 2월 28일에 배를 타고 출항하여 해남현으로 향하다가 2월 29일 추라도 앞 바다에서 갑자기 사나운 바람을 만나 鷗木이 부러져 배를 제어하지 못하고 표류하였다. 3월 5일 한 섬에 이르렀는데, 강남성 소주부 海門縣 永阜沙였다. 해문현 官長이 문정을 받고난 후에 거처를 정해 주었고, 매일 1명당 각기 쌀 1되, 소금 금 2홉, 돈 2푼, 泡 1片씩을 나누어 주도록 관리에게 지시하였다. 2일을 머문 다음 이른바 강남성 總督 中軍과 여러 관장들이 일시에 와서 동석하여 우리 일행을 문정하고는 북경에 보고하였다.

5월 2일에는 소주부 督糧分付官이란 사람이 와서 군졸들에게 진상 卜物을 운반케 하고 우리를 인솔하여 북경으로 출발하였다. 해문 관장이 은자 20냥, 通州 관장 역시 은자 20냥을 제공해 주었다. 배를 타고 해로를 따라 북경에

32) 『비변사등록』 159책, 정조 2년 8월 4일.

도착한 것은 윤 6월 2일이었다. 예부에서 통관을 시켜 관사로 데려가 7일간 머물렀고, 8일에 통관과 함께 출송하여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한편, 김몽로·장보룡·이대혁·허원·이동수·김취성·김익홍·오진태·신수창·김세구·문재필·김인도·윤처성·김만겸·양성좌·임구성·김국경·홍수택·김구발·김대웅·고영문·장익채·정창해·고재웅·정성우 등 25인은 제주에 거주하는 장사군으로 진상품을 실은 고수만의 배에 동승하였다가 표류하였다. 함께 동승하여 표류했던 김처발은 황해도 瑞興 땅에 이르러 병사하고 말았다.

김한택·지영변·고처웅 등 3인은 대정현에 거주하는 行商人이며, 이진웅·김성진·양정욱 등 3인은 경성에 사는 行商人이며 진광춘은 전라도 낙안군에 사는 行商人이며 최창기는 충청도 직산현에 사는 行商人이며 김득생은 공산현에 사는 行商人으로 고수만의 배에 동승하였다가 표류하였다. 고수만 일행이 표류에서 귀환 경로를 지도에 표시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정조 2년(1778) 高守萬 등 사례

9) 정조 3년(1779) 尹道俊 등 사례

정조 3년(1779) 제주 표환인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9명이다. 윤도준·윤인필·김인재·이웅·문도윤·이동·임중언 등 7명은 제주 목 중면에 거주하는 行商人으로 미역을 육지에서 팔고 쌀이나 곡식 등을 사 오기 위하여 출륙하였다. 정봉찬과 권이형은 전라도 임피현 사람으로 행상인이었다. 정조 2년(1778) 5월 18일 제주에 입도하여 미역을 매매하고 정조 3년 정월 4일에 윤도준 일행 등과 함께 배를 탔다가 표류하였다. 이들 9명은 모두 정조 3년 정월 초4일에 별도리에서 출항하였다.

〈표 10〉 정조 3년(1779) 제주 표환인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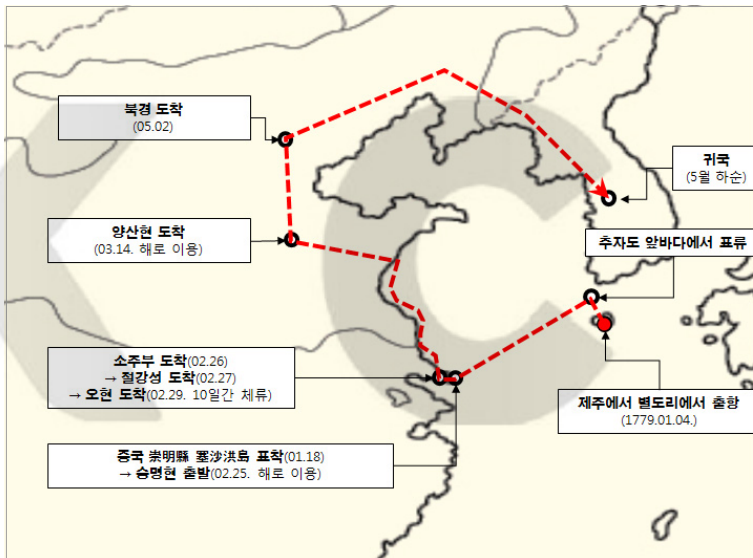
표환인	비고
尹道俊(58세), 尹仁弼(51세), 金仁才(39세), 李 雄(40세), 文道允(31세), 李 同(23세), 任中言(48세)	제주목 중면/ 行商人
鄭奉贊(29세), 權而亨(29세)	전라도 임피현/ 행상인

그러나 1월 4일 당일 저녁 추자도 앞바다에서 갑자기 폭풍을 만나 돛이 부러지고 노도 꺾여서 배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배에 싣고 있던 미역을 모두 바다에 버렸고 배는 표류하였다. 1월 18일 저녁에 한 섬에 표박하였으나 타고 간 배는 모두 물에 잠기고 부숴지고 말았다. 겨우 육지에 내렸는데, 중국의 塞沙洪島였다.

崇明縣의 衙門에서 문정을 받은 후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 唐錢 10냥씩을 제공해 주는 한편, 매일 먹을 양식으로 쌀 2되와 돼지고기 반 근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36일을 기다렸지만 북경에 보낸 奏文의 회답이 오지 않아서 2월 25일에 수직 갑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송명현에서 배를 타고 수로를 따라 소주부(2월 26일), 절강성(2월 27일), 오현(2월 29일)에 도착하였다. 오현에서 10일간 머물다 북경으로부터 회문을 받고 3월 10일 정해진 갑군의 인솔 하에 작은 배를 타고 양산현(3월 14일)에 이르렀다.

33) 『비변사등록』 160책, 정조 3년 7월 9일.

그러나 표환인들은 다시 태풍을 만나 배가 부숴지고 침몰하는 바람에 지니고 있던 唐錢과 약간의 보따리를 모두 물에 빠뜨리고 거의 익사할 지경에 다행히 한 어부를 만나 구출되었다. 육지에 올라와 하루를 머문 뒤에 다시 배를 타고 5월 2일 비로소 북경에 도착할 수 있었다. 예부에서 표환인 일행을 17일 동안 감금하였다가 5월 19일에 通官을 정해 주어서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그림 9〉는 윤도준 일행의 표류에서 귀환까지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9〉 정조 3년(1779) 尹道俊 등 사례

4. 맺음말

이상으로 제주 표환인 문정별단의 분석을 통하여 18세기 중국에 표류되었던 제주인들의 표환 실태를 살펴보았다. 표환인은 표류되었다가 돌아온 사람으로 漂人이라고도 했다. 분석 대상의 문정별단은 모두 9개 사례였다.

첫째, 영조 17년(1741) 제주 표환인은 김철중 일행 19명이다. 1741년 2월 29일 표류하여 3월 21일 중국 절강 태주부 임해현 전잠도에 표착하였다. 그 후 항주를 거쳐 북경에 도착하였고, 귀국할 때는 심양, 봉성, 의주를 거쳐 11월에 한양에 도착하였다. 표류한지 9개월만이었다. 출륙의 목적은 제주 아전 김철중이 사복시에 말 안장을 진상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외에 제주에 장사왔던 나주 상인 이극중도 함께 동승하였다. 표환인들은 귀환 중에 은, 唐錢, 쌀, 염장, 술, 옷, 버선, 신발 등 음식과 각종 생활용품을 제공받았다.

둘째, 영조 34년(1758) 제주 표환인은 김해백 일행 등 40명이다. 표류 선박에는 제주목과 정의현 외에 개성, 서울, 나주, 진도, 청안, 보은, 원주 등 7개 지역 거주자 등 모두 41명이 동승하였다. 표환인 중에 갓양태 행상인은 개성 상인 김응택을 비롯해 모두 11명이었고, 금주의 죄목으로 제주에 유배되어 있다가 풀려나 배에 탔던 인물이 6명, 유배 죄인 관련 가족이 4명, 그리고 유배 죄인들의 호송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제주목 형리와 사령 등 6명이 동승하였다. 또한 말 안장과 山果 진상을 위한 색리 5명, 이전미 담당했던 감관 1명, 뱃사공 7명이었다. 이들은 영조 34년(1758) 1월 4일 표류하여 4월 18일 대만에 표착하였고, 하문부-북건성-통주를 거쳐 7월 21일에 북경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9월에 귀환하였으므로 9개월 가량 소요되었다. 대만에서는 주로 당전, 은화, 大布, 大米, 돼지, 염소 등을 제공받았다.

셋째, 영조 38년(1762) 4월 제주 표환인 7명의 사례이다. 임피현 나리포에서 쌀을 구입하고 제주로 돌아오던 중에 표류한 것이다. 임피현 나리포에는 제주의 흉년에 대비하여 창고를 설치하고 별장을 두어 관리하고 있었다. 표환인들은 무명, 미역, 갓양태, 말총으로 쌀을 구입하고 제주 이전미 등을 배에 싣고 보길도에서 순풍을 기다린 후, 영조 37년(1761) 8월 6일 출항했다가 표류해서 8월 17일 중국 선박에 의해 구조되어 8월 21일 중국 영성현 표착하였다. 그들은 제남부에 25일간 체류하였다가 동년 12월 4일 북경에 도착하였다. 표환인들은 북경에 머물다가 이듬해인 영조 38년(1762) 2월 19일 북경을 출발하여 4월 한양에 도착했다. 접대 받은 물품은 바지, 식량, 방한구, 버선, 신발, 양피옷, 이불, 은자, 양피 털 버선 등이다.

넷째, 영조 41년(1765) 제주 표환인 김순창 등 모두 8명의 사례이다. 박천망이 병사하여 표환인은 김순창, 강재필, 임창성, 양해창, 이귀례, 김정태, 고여성, 하영창 등 8명이다. 모두 제주목 좌면 김녕리 포구에 거주하는 船人들이었다. 이들은 나리포에서 제주로 이전할 쌀을 실어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영조 41년(1765) 2월 11일 제주에서 표류하여 윤 2월 27일 중국 복건성 하포현에 표착하였다. 동년 6월 26일 북경에 도착하여 문정을 받았고, 그후 통주, 책문 등을 거쳐 동년 9월에 귀국하였다.

다섯째, 영조 46년(1770) 제주 표환인 부차길 등 8명의 사례이다. 표환인들은 제주목 중면 별도리에 거주하는 船格으로 제주 구휼을 위한 나리포창의 이전곡 360석을 싣고 제주로 오다가 영조 46년 4월 22일경 중국 선박에 의해 구조되어 장산도에 표착하였다. 관동을 거쳐 5월 8일 심양에 도착하여 문정을 받고 15일간 심양에 머물다가 동년 6월에 한양에 도착하였다.

여섯째, 영조 51년(1775)년 12월 제주 표환인 김세발 등 7명의 사례이다. 모두 제주목 우면 도두리 거주자들인데, 영조 51년 5월 1일 고기 잡이를 하다가 표류하였다. 5월 11일 중국 절강성 한 섬에 표착한 후에 합주부 임해현, 절강성을 거쳐 10월 10일에 북경에 도착하였다. 그후 한양에 도착한 것은 동년 12월이다.

일곱째, 정조 2년(1778) 5월 제주 표환인은 고만재 등 13명의 사례이다. 전복과 공마 진상, 공작미 운반 업무, 행방불명된 매부의 생사 확인 등을 위해 제주를 출륙하였다가 제주로 돌아오기 위하여 정조 원년(1777) 9월 21일 영암 백도에서 출항해서 표류하였다. 표류인들은 10월 11일 절강성 관산도에 표착하였고, 옥환을 거쳐 정조 2년(1778) 1월 11일 항주에 도착하였다. 그후 3월 11일 북경에 도착하여 문정을 받았고, 1개월 동안 북경에 머물다가 4월 13일 북경을 출발하여 5월 한양에 도착했다.

여덟째, 정조 2년(1778) 8월 제주 표환인은 고수만 등 46명이다. 즉, 제주 거주자 高守萬 등 41명, 樂安 거주자 秦光春, 京城 거주자 李辰雄 등 3명, 충청도 稷山 거주자 崔昌起, 公山 거주자 金得生 등이다. 이들 표환인들은 청굴과 추인복 진상, 행상인들이었다. 정조 2년 2월 28일에 배를 타고 제주

를 출항하여 다음 날인 2월 29일 추자도 앞 바다에서 표류하였다. 3월 5일 강소성 소주부 海門縣 永阜沙에 표착하였다. 배를 타고 수로를 따라 북경에 도착한 것은 윤 6월 2일이었다. 그후 동년 8월에 귀국하였다.

아홉째, 정조 3년(1779) 제주 표환인은 모두 9명이다. 모두 행상인으로 제주 외에 임피현 거주자도 동승하였다. 당시 임피현은 제주 구휼에 대비한 나리포창이 운영되고 있어서 빈번한 교류가 있는 지역의 하나였다. 표환인들은 정조 3년 1월 4일 출항하여 추자도 앞바다에서 표류하여 1월 18일 중국의 塞沙洪島에 표착하였다. 그후 송명현, 소주부, 절강성, 오현을 거쳐 5월 2일 북경에 도착하였고, 동년 7월에 귀국하였다.

결국 9개 사례를 통해서 볼 때에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표류지역은 대부분 제주와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표착지는 절강성 전잠도, 관산도, 영성현, 복건성 하포현, 장산도, 소주부 영부사, 새사흥도 등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일대와 대만 지역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귀환 경로는 중국 어느 지역에 표착하든지, 육로나 수로를 통해 경유지마다 문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최종적으로는 북경에서 표류전말에 대한 문정을 마친 후에 심양, 책문 등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의주 등을 거쳐 한양에 도착한 후에 귀환까지의 모든 내용에 대한 문정별단이 작성되었고, 그후 전라도를 거쳐 제주로 돌아 왔다. 귀환 경로 중에 대접 받은 내용들은 대부분 음식과 의류이다. 쌀, 돼지고기, 좁쌀, 道尾魚, 메밀국수, 單長衣·單袴·履子, 大布, 大米, 염소, 바지, 방한구, 버선, 신발, 양피옷, 이불, 양피 털 버선, 은자, 당전, 은화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표환인들의 출항 목적은 말 안장, 말, 굴, 전복 등의 진상, 나리포창의 곡식 운반, 갯양태 등의 행상, 유배, 어업 활동 등을 하다가 표류하고 있다. 9개 사례 표환인 총 156명 중에 나이별 분포는 10대 4명, 20대 34명, 30대 55명, 40대 36명, 50대 19명, 60대 6명, 70대 2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40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생산 활동이 강한 사람이 많이 표류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양진영, 박천망의 경우처럼 병사자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장례가 단행되었다. 제주 거주 사실을 속이고 거짓 진술하는 諱稱은 전라도 영암군 소안도, 강진, 나주 출신임을 밝히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표류했다가 귀환한 표환인들의 직역은 제주목 아전 1명, 감관 1명, 형리 2명, 사령 4명, 색리 1명, 종인 1명, 선주·격군·선격·사공 24명, 어부 7명, 진상 업무 담당자(전복·세공마·감굴 등) 23명, 船人 16명, 상인 64명, 제주정배 죄인 및 가족 10명, 기타 2명으로 갯양태, 미역 등 제주 물품을 매매하는 상인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당시 활성화된 제주 양태 산업의 실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 참고문헌

1. 자료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漂人領來謄錄』
 『耽羅聞見錄』
 『海外見聞錄』
 『濟州啓錄』
 『知瀛錄』

2. 저서

고창석 외,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일지사, 1997.
 박동욱, 『승사록, 조선 선비의 중국 강남 표류기』, (주)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11.
 손승철 · 김강일, 『중 · 근세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7.
 이 훈,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국학자료원, 2000.
 정 민, 『탐라문건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2008.
 정성일, 『전라도와 일본 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2013.
 최성환, 『문순득 표류 연구-조선 후기 문순득의 표류와 세계인식』, 민속원, 2012.
 하우봉, 『조선시대 해양국가와의 교류사』, 경인문화사, 2008.
 한일관계사학회, 『조선시대 한일표류민연구』, 국학자료원, 2001.

3. 논문

권인혁,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哲宗朝 濟州民亂과 관련하여」, 『이원순교수 화갑기념사학논총』, 교학사, 1986.
 권인혁 · 김동전, 「조선 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제19호, 제주대학교 탐라 문화연구소, 1998.
 고동환, 「조선 후기 船商活動과 浦口間 商品流通의 양상-표류관계기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14집, 규장각한국학연구소, 1993.
 고창석, 「『제주제록』에 나타난 제주표도피인의 실태」, 『탐라문화』 13호, 탐라문화연구소, 1993.
 김경옥, 「조선의 대청관계와 서해지역에 표류한 중국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 제49집, 한일관계사학회, 2014.
 김동전, 「18 · 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 : 「大靜縣戶籍中草」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_____, 「하멜의 제주표착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현재성」, 『동아시아연구논총』 제14집, 제주대학교평화연구소, 2003.
 _____,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실태와 대외인식」, 『세계한국학대회 제3회』, 2006.

- 손승철, 『조선후기 강원도의 표류민 발생과 승환』, 『인문과학연구』 45,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 王天泉, 『朝鮮 漂流民에 대한 明의 救助體制 : 중국표착 제주 표류민을 中心으로』, 『역사민속학』 제40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 정성일, 『표류 · 표착의 지역적 특성과 그 현재적 의의』, 『조선시대 한일표류민연구』, 국학자료원, 2001.
- 최성환, 『조선후기 문순득의 표류와 세계인식』,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0.
- 하우봉, 『해양사관에서 본 조선시대의 재조명 : 동남아시아국가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일본사상』 10, 한국일본사상학회, 2006.



An Analysis on *Munjeongbyeoldan* for Jeju Island Returnees from Drift in the 18th century

Kim, Dong-Jun

Pyohwanin(漂還人, a returnee from drift), who is also called Pyoin(漂人, a drifter), refers to a person who has returned from being adrift on the sea. Pyohwanin *Munjeongbyeoldan* is largely composed of the following contents about returnees from drift: the residential areas; the period of drift; the landing places, and the geographical features and the lifestyles of the residents of the landing places including their manners and customs, clothes and food, the agriculture and sericulture, castles and ponds, and military forces; the distances of traveling in the landing places; the contents of experience in visiting places; the period of stay; the details of their being treated in the foreign country.

Pyohwanin *Munjeongbyeoldan* of Jeju island in the 18th century includes nine cases ranging from 1741 (17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of the Joseon dynasty) to 1779 (3rd year of King Jeongjo's reign of the Joseon dynasty). Speaking concretely, they are the returnees from drift: Kim Cheol-jung (18 people) in 1741 (17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Kim Hae-baek (40 people) in 1758 (34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Kim Jung-gyeong (7 people) in 1762 (38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Kim Sun-chang (8 people) in 1765 (41st year of King Yeongjo's reign), Bu Cha-gil (8 people) in 1770 (46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Kim Se-bal (7 people) in 1775 (51st year of King Yeongjo's reign), Go Man-jae (13 people) in May, 1778 (2nd year of King Jeongjo's reign), Go Su-man (46 people) in August, 1778

(2nd year of King Jeongjo's reign), and Yun Do-jun (9 people) in 1779 (3rd year of King Jeongjo's reign).

When seen through these nine cases, drifts happened mostly on the sea near Jeju island and Chuja island, and their landing areas covered Jiangsu province, Zhejiang province, Fujian province and Taiwan such as Jeonjamdo Island in Zhejiang province, Gwansando Island, Ningcheng county, Xiapu county in Fujian province, Jangsando Island, Yeongbusa in Suzhou prefecture and Saesahongdo island. The return routes covered Beijing, Shenyang and Zhamen. Most of the items provided on the return route were food and clothes including rice, pork, millet, porgy, buckwheat noodles, long clothing for ladies, trousers for men, shoes, hemp cloth, goats, cold weather gears, socks, sheepskin dress, blanket, sheepskin and wool hair socks, silver, Tang coins and silver coins.

Returnees from drift(Pyohwanin) were mostly sailing to present horses' saddles, horses, tangerines and abalones to the king, to transport grain from Naripo port, to sell hat shades and etc, to go into exile or to go fishing, when they got adrift in the sea. The age distribution of in total of 156 Pyohwanin(returnees from drift) shown in the nine cases consisted of 4 people in their 10s, 34 people in their 20s, 55 people in their 30s, 36 people in their 40s, 19 people in their 50s, 6 people in their 60s and 2 people in their 70s. People in their 20s to 40s account for more than 80%. This means that people who were active in production made up the majority of drifters. In a case where a drifter died of sickness on the way back from drift like the cases of Yang Jin-yeong and Park Cheon-mang, the funeral was conducted after the corpse was examined in the relevant district. There were cases of false statements such as hiding the fact of residing in Jeju Island and telling a lie of being from Soan Island in Yeongam-gun, Gangjin and Naju, Jeolla province.

Key words : Pyohwanin(Returnee from drift), Pyoin(Drifter),
Munjeongbyeoldan, Jeju Island, False statement, Drift, Zhejiang
province, Fujian province, Taiwan

